

# 한국의 自然유산을 총정리한다

고생물에서 산천·식물·곤충까지 시리즈로 엮어내

우리나라를 일컬어 금수강산이나 山紫水明이니 하는 말들이, 혹시 자화자찬의 상투화 된 관념에 불과한 것은 아닌가.

국토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현장에서 체득할 기회를 갖지 못한 대부분의 보통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품어보지 못한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이런 의심에 대해, 그것은 '관념이 아니라 사실'임을 확인시키는 「한국의 자연」시리즈가 새로 발간돼 출판가의 주목을 끌고 있다.

도서출판 아카데미 서적이 2년여의 준비 끝에 전16권 기획 중 우선 「한국의 산」 상·하편, 「한국의 새」 「한국의 동굴」 등 4권을 선보인 이 시리즈는, 무엇보다도 우리 국토와 자연에 대한 최초의 총괄적이고도 체계적인 정리라는 점에 큰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우리것'에 대한 독자와 출판계의 관심이 주로 문화 쪽에 쏠려 있었던 사실에 비추어, 「한국의 자연」시리즈는 그 시도만으로도 이미 긍정적이라는 것.

## 전16권 기획 중 「한국의 산」 등 4권 발간

또한, 전문학자와 전문사진작가의 공동작업으로 정확한 해설과 풍부한 컬러도판이 잘 조화돼, '자연도감'으로서의 역할에 부족함이 없도록 편집된 것도 이 시리즈의 장점으로 꼽힐만하다. 아카데미 서적 朱誠弼 사장의 말에 따르면 이 시리즈는 실용성과 학문적 정확성의 결합에 특히 신경을 썼다고 한다.

“「한국의 자연」시리즈의 기본적인 기획의도는 우리나라 자연유산의 전모를 체계적으로 분류, 집성화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이 책들이 과학교육의 기초자료 구실을 또한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가령, 학생들이나 교사가 야외학습을 나갔을 때 부딪치는 문제들, 곤충·식물의 이름을 확인하고 생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참고서가 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자면 사진과 해설의 완벽한 조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출판사측에서 제일 먼저 착수한 일이 편집위원회의 구성. 1986년 2월 시리즈 발간의 대강의 계획을 마련하고, 곧이어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망라한 편집위원회를 구성했다. 서울대 식물학과 정영호교수를 위원장으로, 김근원(사진작가), 김훈수(서울대 동물학과), 남궁준(한국거미연구소), 석동일(사진작가), 우한정(산림청 임업시험장), 윤무부(경희대 생물학과), 윤일병(고려대 생물

학과), 이은복(한국자연보존협회), 이인규(서울대 식물학과), 전상린(상명여대 생물학과), 조무연(산림청 임업시험장), 홍순우(서울대 미생물학과) 등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들 편집위원이 각각 총론, 산, 새, 동굴, 육상척추동물, 담수어류, 곤충, 거미, 식물, 해양동물, 버섯, 해조류, 고생물 등 해당분야별로 집필책임 맡고, 여기에 이규열, 김수만 등 4명의 사진작가가 가세해 작업에 착수했다. 때로는 집필자와 사진작가가 공동으로 현장조사를 나가고,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땐 사진작가 단독으로 찍은 사진을 놓고 집필자와 함께 토의, 선별하는 과정을 거쳐 앞서든 「한국의 산」 등 4권이 이번에 먼저 나오게 됐다.

이 과정에서 사진작가는 물론, 집필자나 출판사측에서 가장 신경을 쓰고 심혈을 기울인 것이 '좋은 사진'의 확보였다. 「한국의 자연」시리즈는, 그것이 책으로 묶여져 나오고나서의 실용적 효과에 앞서, 우선은 있는 그대로의 우리나라 자연을 가장 충실히 재현해야 한다는 의무를 스스로 부담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의무는 이 책들을 통해 대부분 훌륭하게 수행되고 있기도 하다.

## '좋은 사진' 찍기 위해 생명의 위협 겪기도

그 대표적인 경우가 김근원, 상훈 부자가 함께 편집한 「한국의 산」 상·하권.

이 책은 편집자들이 머리말에서 밝히고 있는대로 '대략 200여개에 이르는 우리의 명산 가운데 56개의 산밖에 수록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남한 전역에 산재한 영산거봉의 면모를 두루 살피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꾸며졌다. 특히, 산악사진가로 정평이 나 있는 김근원씨가 30년간 1년의 2/3를 산에 머물며 찍은 사진들을 가려 뽑아 설악산에서 한라산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산악의 일대장관을 엿볼 수 있게 해 준다.

또한, 사계절의 변화에 따라 시시각각 모습을 달리하는 산과 계곡, 그리고 그곳에서 자라는 꽃과 나무들의 모습은 기왕의 '자연도감'류가 보여주지 못했던 우리 산의 진면목을 새롭게 드러내고 있다.

윤무부교수가 해설을 맡고, 윤무부교수 및 이규열, 김수만씨 등 두 사진작가가 촬영을 담당한 「한국의 새」 역시 우리나라 최초의 본격적인 조류생태도감이라는 점에서 그 의



우리나라의 국토와 자연,

그리고 동·식물에 이르기까지

자연유산의 전모를 체계적으로 분류,

집성한 이 시리즈는

전문학자와 사진작가의 공동작업으로

정확한 해설과 풍부한 컬러도판이

잘 조화돼 '자연도감'으로서의 역할에

부족함이 없도록 꾸며졌다.

의가 크다. 1987년 현재 총394종에 달하는 한국의 새들 가운데 모두 205종을 소개하고 있는데, 각 사진마다 촬영일시를 명기했다. 특히, 촬영대상의 포착이라는 기술적인 난점에도 불구하고, 비무장지대에서 하천의 늪지대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새들의 서식처나 도래지로 알려진 곳을 두루 찾아 필름에 담은 열의가 크게 돋보인다.

석동일씨의 사진과 서무송, 남궁준씨의 해설로 엮은 「한국의 동굴」은 최근 '동굴학(speleology)'이란 독립된 단위학문으로 정립될 정도까지 활발해지고 있는 이 방면의 세계적인 연구추세에 비추어 본다면 오히려 때늦은, 그래서 그 의의가 더욱더 높게 평가되는 책이다. 관음굴, 고수굴, 성류굴, 빌레못굴 등 우리나라 29개의 동굴과 그 각각의 동굴의 2차생성물, 그리고 그곳에 서식하는 동물들의 모습을 최초로 정리했다. 10여년동안 석동일씨가 찍은 2만여컷의 사진을 동굴연구 전문가인 남궁준, 서무송씨와 함께 500여컷으로 추려서 수록해, 우리나라 동굴에 관한 한 가장 완벽하게 정제된 종합보고서라 할 만하다.

“동굴사진은 오직 랜턴과 플래시만으로 대상을 포착해야 하고, 100%에 가까운 습도를 또한 이겨내야만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고

말하는 석동일씨는, 이 작업을 하면서 로프에 매달린 채 탈진해서 실신하기도 하고, 또 동굴의 바위 틈에 끼어 꼼짝도 못하고 구조되기만을 기다리는 생명의 위협도 여러차례 겪었다고 전한다.

## 번역작업도 동시진행

올가을 서울올림픽 이전 완간을 목표로 요즘 이 시리즈 발간에 온 社力を 집중하고 있는 아카데미서적에서는 한편으로 「한국의 자연」시리즈의 영역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애초에는 韓·英본을 동시출간할 예정이었으나 '여러가지 사정이 여의치 않아' 영역본 출간이 다소 늦어지게 되었다는 것이 주성필 사장의 설명이다.

기왕에 간행된 것들 가운데 「한국의 새」는 한양대 생물학과 최창희 교수가 번역을 완료해 현재 미국 조류학자의 감수를 받고 있는 상태고, 「한국의 산」과 「한국의 동굴」은 한국번역가협회 이상영씨가 한창 번역중에 있다고 한다. 아울러 올여름 2차분으로 발간될 「한국의 식물」 3권과 「한국의 버섯」도 곧 번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따라서, 「한국의 자연」시리즈는, 번역까지를 포함해 출판사의 계획대로 완간될 경우, 우리나라 자연유산에 대한 최초의 체계적 집대성이라는 일차적 의의와 함께, 서울올림픽을 전후해 우리나라를 찾은 많은 외국인들에게 우리 국토와 자연의 참모습을 제대로 소개하는데도 크게 기여하리라는 전망이다.

편집위원회 위원장 정영호교수의 말대로 「한국의 자연」시리즈는 '우리 손 우리 기술로 우리 자연의 아름다움을 떳떳이 밝힌 책'으로 '그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밝힘으로써 자연보호 실천을 위한 구체적 수단'의 하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아카데미서적 / A4변형 / 각권 280면 내외 / 각권 3500원

— 강철주 기자